

광주 최대 혼잡도로 무진·빛고을대로 ‘쌍두마차’

시, 교통 기초조사 보고서 교차로 동림IC·계수 최대 “도심-외곽 이중 전략 필요”

광주시가 실시한 교통 기초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도로 구간은 무진대로와 빛고을대로가, 교차로는 동림IC와 계수교차로가 각각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광주시가 공개한 교통관련 기초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4시간 기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하루 24만1,000여대를 기록한 동림IC로 나타났다.

이어 계수교차로(22만6,000여대), 산월IC(20만7,000여대), 풍암사거리(19만3,000여대), 광주여대사거리

(19만1,000여대), 상무교차로(1만8,000여대), 용봉IC(18만2,000여대)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교차로 교통량을 토대로 산출한 도로 구간(가로) 교통량은 무진대로, 빛고을대로, 제2순환도로가 상위 10위권을 휩쓸었다.

도로 구간 24시간 기준 교통량은 무진대로 계수교차로→운수IC사거리(7만여대), 무진대로 운수IC사거리→계수교차로(6만9,000여대), 빛고을대로 동림IC→계수교차로(6만3,000여대)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통량 상위 10위 도로 구간 중 무진대로는 1·2·5·8위, 빛고을대로는 3·4위, 제2순환도로는 6·7·9·10위 구간에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73만7,511대이며 광산구 22만1,462대, 북구

21만2,233대, 서구 15만2,898대, 남구 9만6,783대, 동구 4만8,691대 순이다.

차량의 평균 주행 속도는 39.86km/h로 지난해 대비 1.48km 증가했으며 가장 빠르게 주행하는 도로는 도시부 고속도로인 제2순환도로가 69.2~69.4km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운행속도가 가장 느린 구간은 운전로 풍금사거리에서 계수교차로 사거리로 평균 10.2km이며 하서로 운암사거리-국립박물관입구 12.3km, 무등로 동운고가사거리-산수오거리 13.9km, 동문대로 서방사거리-문흥IC 12km, 운전로 풍금사거리-계수교차로 12.1km, 하서로 운암사거리-국립박물관입구 12.2km 순이다.

교차로 지체 시간이 가장 많은 구간은 광천사거리가 평균 149.5초였으며 상무교차로 139.4초, 백운광장 138.2초

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 무진대로, 빛고을대로, 제2순환도로 등 간선·순환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돼 도심 보다는 외곽 순환·방사축 중심의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순환축정체 완화대책(입체화, 신호 최적화 등) 마련과 함께 차로 확장, 우회도로 건설 등 중장기적 교통개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자·보 중심으로 승용차 이용을 대체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지만, 외곽·간선도로의 승용차 교통량은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간선·순환도로 개선을 위한 5년 단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건희 특검 자진 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중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련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전남대병원 1155억 적자... “지역 의료망 위협 신호”

환자수 등 각종 지표 경고음 김문수 “지원대책 조속 실행”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전남대학 교병원이 누적 1,15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7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234억원 등 2023년 하반기부터 4개 반기 연속 적자

를 이어갔다. 전남대병원 당기순이익은 전공의 인력이 대거 이탈한 2023년 상반기 16억원으로 급감한 뒤 같은 해 하반기 들어 손실로 돌아섰다. 반기별 당기순손실은 2023년 하반기 244억원, 2024년 상반기 356억원·하반기 321억원 등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155억원, 평균 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운영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경고음을 냈다. 입원 환자 수는 2023년 하반기 26만8,548명에서 올해 상반기 17만208명으로 36%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병상 가동률은 광주 본원 기준 78.1%에서 53.1%로 25%포인트 감소했다.

암 치료 전문인 화순전남대병원 24.2%포인트 하락,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빛고을병원 28.8%포인트 등 본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올해 상반기 8,482건인 수술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만5,405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래진료 건수 또한 이 기간 75만5,032건에서 60만1,596건으로 20% 줄었다.

김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광주·전남 지역민의 의료 안전망을 고려하면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닌 지역 필수 의료 체계 전반의 위협 신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에 담은 권역 거점병원 육성과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입법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광주 5개 자치구, 시 복지사업 예산 분담 ‘거절’

“일방적 예산 조정 반대”

광주 5개 자치구가 복지 관련 보조사업의 예산을 분담하자는 광주시 제안을 거절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17일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복지 보조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에 대해 “일방적인 예산 분담률 조정에 반대한다”며 수용하지 않는 뜻을 모았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19개 복지 사업에 대해 시·구 분담률을 9대 1 또는 8대 2로 조정하고, 88억2,300만원을 5개구가 추가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인구수에 따라 북구 24억

7,900만원, 광산구 19억1,900만원, 서구 18억2,800만원, 남구 15억9,200만원, 동구 10억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의 재정 안정을 위해 시가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구와 협의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복지비 분담률 조정안에 대한 자체 분석과 함께 대안을 광주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분담률 조정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협의회는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8개 국고보조사업에 한해 타 지자체의 분담률을 벤치마킹해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현재 시가 전액 부담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대해 자치구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시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할 근거가 없다”며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민주, 구속 권성동에 “윤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법치주의 회복 출발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에 대해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

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 앞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권 의원을 향해 “지은 죄는 짓값을 치러야 한다”며 “이제 그만 봅시다. 권성동 아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의

원, 사립귀정”이라며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은 감옥, 권성동은 구속. 국민의힘의 도덕적 파산”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과 대선자금 사용 여부까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 역시 “권 의원이 스스로를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양 포장하는 모습이 참 뻔뻔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서울=김현수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시험가동 돌입... 10월 생산 재개

지난 5월 화재로 멈춰 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4개월 만에 생산 재개를 위한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

1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이날부터 사흘 간 오는 10월 타이어 본격 생산에 앞서 설비·안전 점검을 위

한 시험 가동을 실시했다.

불이 나지 않은 1공장의 반제품 결합하는 성형 공정과 타이어 형태로 만드는 가류 공정, 2공장의 피해가 없는 검사·선별·출하 설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곡성공장 등에서 고무와 반제품을 수급받아 하루 1,000본 생산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후 공정을 개선하면 하루 1만본까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승현 기자